

고객찾아 자동차 예방점검 사전서비스

(Before service)



현대자동차(주) 송우지점, 송우리 석향마을에서

5월19일 소흘읍 송우리 석향마을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현대자동차(주) 송우지점(지점장 김태영) 직원들이 무상순회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무상순회서비스는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전조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패드, 와이퍼블레이드, 타이어공기압 등 기본적인 성능검사와 간단한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비포서비스는 사후에 차량을 점검하는 애프터 서비스에서 벗어나 미리 고객을 찾아 예방 점검을 하는 사전 서비스의 개념이다.

특히 기존의 애프터 서비스가 수동적이고 제한적이었던 반면, 고객의 어려운 부분을 미리 끊어 줌으로써 고객만족 극대화를 실현하는 적극적이고 확대된 서비스를 실시했다.

김태영 지점장은 "주공3단지 오너정비교실, 주공2단지 무상 순회 서비스도 실시한 바 있다"며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나 공동주택 등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포 서비스 실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현대자동차(주) 송우지점(031-542-2617)으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역 어린이 安保의식 함양 제15항공단 제503공격항공대대 부대개방

제15항공단 예하 제503공격항공대대는 최근 지역내 어린이들의 대군 신뢰증진과 안보관 확립을 위해 부대개방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90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온 유암초등학교 학생 120여명을 부대로 초청해 현대화된 부대시설과 보급품, 장비 등을 견학하고 부대소개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각종 항공기 장비 성능과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직접 탑승해 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국군장병들이 국가방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지켜본 어린이들은 자신들로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제503공격항공대대장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자매결연학교인 유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어린이들에게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터뷰 - 영북면 정용부 이장협의회 회장

이장단, 모내기철 농촌일손 돕기 적극 나서

영북면 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용부 영북면 이장협의회장은 1937년(71세)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영북면에서 군 생활을 마친 후 결혼하여 정착했다. 정 회장은 4남1녀의 자녀를 두고 운전 5리에서 50년간 살아왔다. 마을 이장 일은 19년째 해오고 있으며 이장 협의회장은 19개리 마을 이장들이 모여 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서 10년전 이장협의회장을 6년간 해왔던 경험을 살려 올해 1월 다시 선출된 것이다.



이장협의회는 매월 20일 이장단 회의를 통해 영북면의 개발 계획 및 민원 행정 등을 접하고 민행에 대한 현안과 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민의를 영북면에 건의하고 있다. 19년째 마을일을 하다 보니 집집마다 주민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모든 일을 믿고 삼고하고 있다.

이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데 육질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나 4년 전부터 주민들이 내던 리세를 징수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하는 월 20만원의 비용으로만 일을 추진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계획은 면민 단합과 접체인 지역활성화를 위해 이장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계획이며 자연부락은 마을 주민들이 이장을 직접 선출하여 이장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주민들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나 시내(운천 1, 2, 3, 6, 7, 8리)는 주민들이 아닌 개발원들이 이장을 선출하다보니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해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는 모습이 바뀌는 걸 볼 때와 마을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장을 잘 따르고 마을을 위해 노력할 때다.

정 회장은 농사(는 2,000평 밭 1,000평)를 지으며 농업이사로 8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현재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직과 이장 협의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영북면 이장단은 모내기철로 한창 일손이 바쁜 가운데 한·미 FTA등 어려운 여건으로 일할 젊은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 군부대에 대민 지원을 요청하여 도와 주는 등 적극적인 농촌일손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대민지원은 주민들이 직접 군부대에 대민지원을 요청하여 부족한 인원을 충당했으나 지원 나온 군인들의 음주 사고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에서 지원을 꺼려하는 상황이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목회단상

진실의 용기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에 요구되는 것은 진실된 삶이고 교훈이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은 용기(勇氣)고 덕목(德目)이다. 자급의 재벌 총수의 일련의 폭행(暴行)사건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고 있다. "인일시지환 萬日止患"이라는 교훈이 생각난다. 한 번의 분을 참으면 백 날의 근심을 면하게 된다는 말이다.

내 자식이 밖에 나가 매 맞고 돌아오면 어느 부모인들 편할 리는 없다. 그러나 한번의 흥분(興奮)을 참았다면 그런 후회(後悔)의 탄식은 없었을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자조(自嘲)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他山之石)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물질의 힘과 수양의 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켜준 교훈이다. 물리적 힘은 잠깐이지만 수양의 덕은 위대한 것임을 일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성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고 가리켜 주고있다.

우리네 부모들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돈 있고 힘있으면

힘이 먼저지 용서니 관용이니 하는 것은 사치스런 말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는 소년시절 위신통에게 "너는 커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말을 한번도 한 일이 없는데 나도 너의 그 말에 동의한다. 어떻게 살던 양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어머니가 있으니가 조지 워싱턴이 탄생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백 개를 잃더라도 진실을 얻는다면 그것은 슬기로움이 다. 어린이 날 어머니날이 있는 가정의 달에 진실의 용기가 아쉬운 때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용기, 수양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에게 성서는 다시 한번 교훈 하신다. 잠언서 16장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城)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나"라고 가르쳐 주신다. 문의) 031-532-2489

포천중학교 학생 통일교육

민주평통, 판문점 견학 현장체험교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회장 이종희)는 초·중·고생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통일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체험교육을 5월11일 판문점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포천중학교 학생 31명과 인솔교사 2명이 참가했으며 오전7시부터 오후4시까지 판문점, 도라OP, 제3광골, 도라산역 등을 방문했다.

이날 통일체험교육에 참가한 포천중학교 학생들은 통일기원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이며 장상길 파주시 문화재해설사의 안내와 설명에 따라 진행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는 앞으로 포천초등학교, 동남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체험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⑤

북한의 지적제도

통일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토지 소유권 문제이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 이 문제는 통일의 형태와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기본은 자유경쟁 시장 질서를 토대로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제 질서에 따라야 할 것이다. 먼저 분단 이후 남북한의 토지 소유권 제도와 지적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북한은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같은 해 3월8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지뿐만 아니라 산림, 광산, 공장 등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 전반의 물수를 통한 국유화 조치를 통해 실시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했고 몰수된 토지는 비옥도, 토지의 구성, 이용 조건 등 토지의 질과 노동 능력 소유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빈농과 고농 등 72만 호에 분배되었는데 원칙적으로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토지의 처분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북한 토지의 전체 면적은 1천 200만ha이며 이 중 임야가 79%인 950만ha이고 농경지는 16.7%인 200만ha 정도이다. 그 나머지는 도시 용지 및 기타 용지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엔 우리나라와 동일한 지적 측량 및 지적제도가 없다. 북한은 분단 직후인 1946년에 토지개혁을 통해 지적공부를 무효화시키고 토지에 대한 제반 자료를 정리한 '토지대장' 및 '건물등록대장'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 등록대장, 토지이용허가 정리부, 토지경력서, 지적도, 토양도, 토지정리설계도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화된 지적 관리 법령이 없고 지적 변경, 이동지 정리, 등록관리 등 일부만이 '토지법' 등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분단 이전에 정리 작성된 등기부를 모두 소각하여

부동산 등기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관리의 일환으로 부동산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토지제도는 소유권 회복, 소유제도 개편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우리와는 이질적인 지적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리하여 기준점, 지적도면, 용어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지적제도의 정착에만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토지제도 정리에도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지적제도 전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측량 기준점은 일제 시대에 일본 육지측량부의 삼각 측량 기준에 의해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설치하였다. 북한 관련 지적원도는 현재 통일부측기북보존소에 리·동별로 특수 제작된 종이상자에 보관되어 있으며 보관 상태도 양

호하다. 다만 일제 시대에 일본에 의해 작성된 지적공부는 첫째, 경계, 지목, 지번 등 기본적인 사항만 등록되어 있고 둘째, 측량 측량에 의해 도해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계선의 현장에 복원할 경우 선의 굵기와 측량자에 따라 발생되는 개인 오차 등으로 같은 위치에 경계를 복원할 수 없으며 셋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에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보다 적게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지적 도면이 과세 대상인 토지와 기타 임야로 이원화되어 있고 축척도 1/600, 1/1200, 1/2400 등 서로 다른 축척으로 등록되어 실제 토지를 측량할 때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분단 이후 북한에서는 지적공부 자체를 없앴으므로 일제 시대의 지적공부만으로는 통일 이후 토지 소유권 문제의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희석 대성지적671호단 대표이사



아름다운 생활 ⑤

여드름 피부 관리

여드름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가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데다 각질이 모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여드름 악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춘기에는 안드로젠이라는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 피지선이 성숙되어 피지를 과다하게 내보내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화장 등에 의해 피지 배출이 잘되지 않거나 생리 전 분비되는 황체호르몬이 증가하거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피지선을 자극하여 발생합니다. 기타 햇빛, 음식물, 약품, 임신,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여드름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을 꼼꼼하게 지워야 합니다. 세안에 앞서 꼼꼼하게 화장을 지우는데 유분 함유량이 적은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으로 지우도록 해야 합니다. 피지 분

비가 많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딥 클렌징을 해야 합니다. 딥 클렌징으로 모공 청소를 해주어야 하는데 먼저 스팀 타일로 각질을 충분히 풀어줘야 각질 제거가 잘되어 모공 속의 노폐물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해야 합니다. 피지가 충분히 빠지도록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야 하는데 너무 세게 문지르면 자극에 의해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 전용 세안제로 피지 제거 성분과 각질제거성분이 있고 여드름 균 억제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지나친 세안은 좋지 않습니다. 여드름피부는 하루에 두 번 정도 꼼꼼하게 세안해야 합니다. 세안을 너무 자주해도 그 자극으로 오히려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중한 화장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유성 화장품은 모공을 막으므로 사용하지 말고 여드름을 감추려고 두터운

화장을 하면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無알코올, 저 자극 토너를 사용하여 피지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기초와 메이크업제품은 오일 프리 또는 비면포 생성 효과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여드름 전용 제품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잘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끝으로 균형 있는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피지분비를 억제하는 비타민B2, B6 가 많이 함유된 미역, 김, 녹차 등의 음식물과 비타민C가 많은 신선한 야채,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여드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위의 방법으로 피부부 주ვნ히 관리하여 감추지 말고 당당한 피부로 활기찬 생활을 누리세요!



뷰티컨설팅트 송명선 010-9757-7648